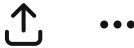


TP 나를 사랑하지 않기로

🔍 로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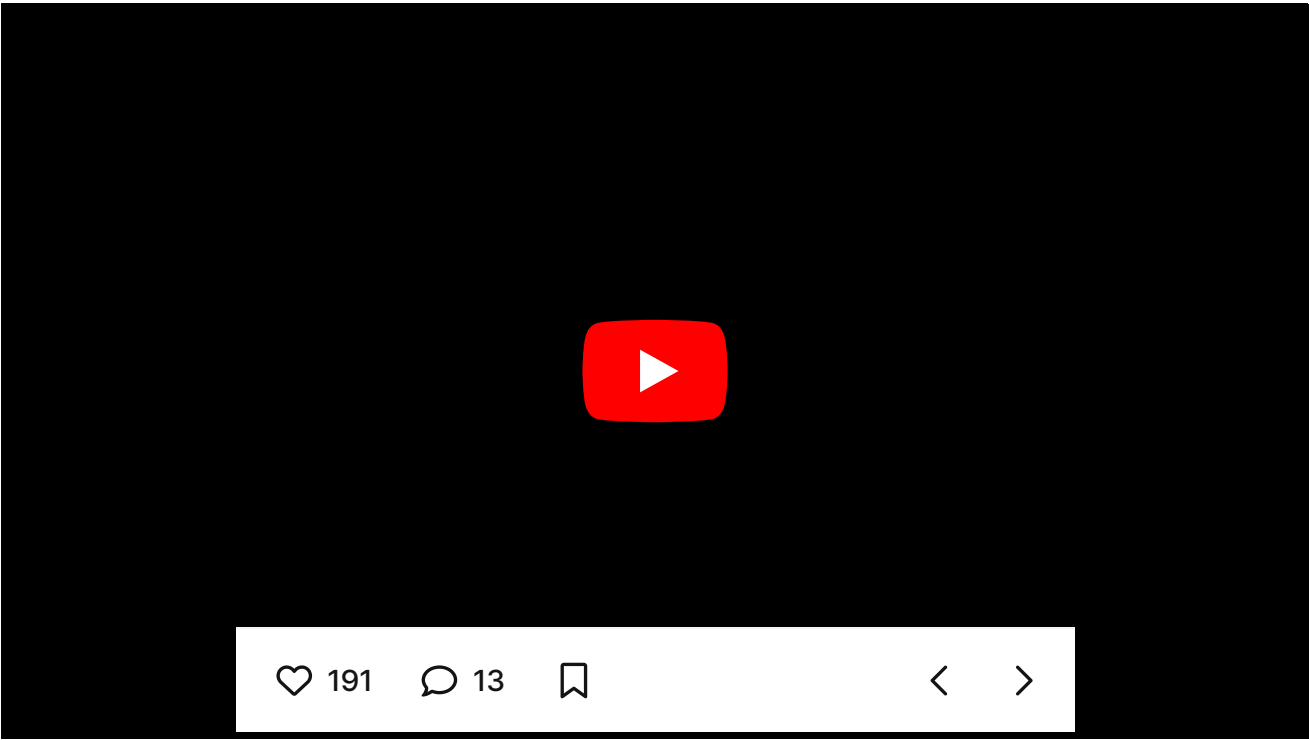


EDEN 2/2 伊甸园 2/2

윙낫



differ 不同
2021.10.11 · 조회 2.5천 · 阅读量 2.5 千 · 좋아요 191 · 댓글 13



[소재 주의] [素材注意]

"에덴이 뭐야. 이름 존나 구려."

"伊甸园是什么？名字真难听。"

까만색 명함을 앞뒤로 뒤집으며 우영이 중얼거렸다. 잇날 사이에 물린 담배 때문에 발음이 죄 새었지만 알아듣는 데엔 지장이 없었다. 담벼락에 등을 기댄 도끼는 우영의 되바라진 평가가 마음에 드는지 하늘로 연기를 뿜으며 길꺾었다. 어차피 건물 외벽에 번듯한 간판 하나 달지 못하는 영업장이니 이름 따위 없어도 될 텐데. 우영이 죽은 아버지를 따라 처음 이곳에 발을 들인 그때에도 여긴 에덴이라 불렸다.

乌黑的名片在手中翻来覆去，郑友荣喃喃自语。虽然嘴里叼着的香烟让他的发音有些含糊，但并不影响理解。靠在墙上的宋旼琦似乎对郑友荣的尖刻评价很满意，向天空吐出一口烟，咯咯笑了起来。反正这家连像样的招牌都挂不上的店，名字什么的也无所谓。郑友荣第一次跟随已故的父亲来到这里时，这里就被称为伊甸园。

만취한 아버지가 손을 떨며 그리워하던 곳. 중독자들만 득시글대는 불법 카지노에 인류 최초의 고향이자 낙원의 이름을 갖다 붙인 건 대체 누구의 고약한 아이디어인지. 우영은 알파벳 밑에 작게 쓰인 최산이라는 두 글자를 노려보다 주머니에 대충 명함을 쑤셔 넣었다. 주소나 연락처 한 줄 없는 명함이 최산의 인생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별로였다.

醉醺醺的父亲颤抖着手，怀念着那个地方。到底是谁的恶劣主意，把这个只充斥着瘾君子的非法赌场，冠上了人类最初的故乡和乐园的名字。郑友荣盯着字母下面小小的“崔伞”两个字看了一会儿，然后随手把名片塞进了口袋。没有地址或联系方式的名片，仿佛象征着崔伞的人生，这让他感到不舒服。

길어진 담뱃재를 손끝으로 투박하게 털어낸 우영이 다시금 필터 끝을 빨아당겼다. 담배는 도끼에게 배웠다. 최산은 강패면서 담배라면 아주 질색을 했다. 냄새만 맡아도 콜록거리며 기침을 해대는 터라 웃기게도 카빠 건물 전체가 금연 구역이었다. 어쩔 수 없이 삼촌들은 쫓겨난 사람처럼 건물 사이 골목에 숨어 연기를 빨았다. 벌건 대낮에 시커먼 강패 새끼들끼리 웅기종기 모여 갖는 담타라니. 참으로 폼 안 나는 짓이었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꼴을 못 봤다. 여기서 최산의 말이 곧 법이니까.

长长的烟灰被友荣用手指粗鲁地弹掉，他再次吸了一口烟。抽烟是从伞那里学来的。崔伞虽然是个混混，但对烟味却非常反感。只要闻到烟味，他就会咳嗽得厉害，所以搞笑的是，整个 Kappa 大楼都是禁烟区。无奈之下，叔叔们像被赶出来的人一样，躲在楼之间的巷子里抽烟。大白天的，黑压压的一群混混聚在一起抽烟，真是毫无形象可言，但从来没见过有人抱怨。在这里，崔伞的话就是法律。

"담배 무슨 품이 제법 그럴싸한 걸 보니 정우영이 이제 다 컸구만."

"看郑友荣叼着烟的样子，还真有模有样的，看来他现在真的长大了。"

우영을 중학생 때부터 봐 온 막내 삼촌이 별안간 감개가 무량한 표정을 한다. 지금보다 십 센티 이상 작았던 우영은 빈 가방을 한쪽 어깨에 걸고 늘 이곳으로 하교했다. 같은 반 아이들이 학원에 갈 때 우영은 삼촌들 틈에서 카드 섞는 법을 배우며 자랐다. 화분 하나 보살펴 본 적 없는 최산은 아이 다루는 일에는 전혀 소질이 없었고, 그래서 우영을 키운 건 팔 할이 강패 삼촌들이었다. 막말로 삼촌들이 없었다면 우영은 진작 굶어 죽었을지도 몰랐다.

从初中时代就认识友荣的最小叔叔突然露出了感慨万千的表情。比现在矮了十厘米以上的友荣，总是背着一个空书包从这里放学回家。当同班同学去上补习班时，友荣在叔叔们中间学会了洗牌。崔伞从来没有照顾过一盆花，对照顾孩子完全没有天赋，所以友荣大部分时间都是由黑帮叔叔们抚养长大的。说实话，如果没有这些叔叔，友荣可能早就饿死了。

아무리 그래도 아들 뻔 되는 놈이랑 맛담배 피면서 나눌만한 감상은 아니지 않나. 우영은 고개를 내리며 티셔츠 소매 아래로 핏줄이 불거진 제 팔을 쓰다듬었다. 무슨 간지러운 소리냐고 핀잔을 하기도 전에 옆에서 다른 삼촌이 맛장구를 치고 들어왔다.

无论如何，和一个可以当儿子的家伙一起抽烟分享感受是不合适的。郑友荣低下头，抚摸着自己在 T 恤袖子下突出的血管。还没来得及嘲笑这种令人发痒的话，旁边的另一个叔叔就附和了起来。

"너도 그렇게 느꼈냐? 아니 아까부터 보는데 그림이 좀 나온다니까."

"你也这么觉得吗？不，我从刚才开始看，感觉画面有点出来了。"

"당연하지 짜식들아. 누가 가르쳤는데." "当然了，小子们。是谁教你们的。"

도끼는 자기가 칭찬을 들은 마냥 뿌듯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였다. 우영은 기가 차다는 듯 웃고는 짹아진 담배를 운동화 발로 짓이기며 일어섰다.

斧头像自己听到了表扬一样，得意地耸了耸肩。友荣像是无语地笑了笑，用运动鞋踩灭了短了的香烟，站了起来。

"그게 아니라, 내가 삼촌들보다 잘생겨서 담배 피는 것도 예뻐 보이는 거거든?"

"不是那样的，是因为我比叔叔们长得帅，所以抽烟也显得好看。"

앙큼하게 볼에 손가락까지 찍었는데 상스러운 애정 표현들이 따라붙는다. 우영은 타격 없는 얼굴로 웃으며 가볍게 제자리 뛰기를 했다. 몸에서 매캐한 냄새가 빠지기 전까지는 산과 마주칠 수 없었다. 최산은 우영의 흡연 사실을 전혀 모른다. 알더라도 화를 내진 않겠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영은 산의 화난 얼굴이 무서운 게 아니었다. 저를 혼내지 않을까 봐. 알아서 하라며 간섭하지 않을까 봐. 그게 겁이 났다.

狡猾地在脸颊上戳了戳手指，伴随着粗俗的爱意表达。郑友荣笑着，脸上没有任何打击的痕迹，轻轻地原地跳了几下。在身上的烟味消散之前，他不能和崔伞见面。崔伞完全不知道郑友荣抽烟的事实。即使知道了，也不会生气吧。因为他比任何人都清楚自己没有资格生气。然而，郑友荣害怕的并不是崔伞生气的脸。他害怕的是崔伞不会责备他。害怕的是崔伞会说“随你便”，不再干涉他。这才是他真正害怕的。

"세상 천지에 담배 연기 극혐하는 조폭은 우리 형님 밖에 없을걸."

"世上唯一讨厌香烟烟雾的黑帮老大就是我们大哥了。"

"그러니까 말이다. 듣기로 그분은 완전 꼴초셨다던데."

"所以说啊。据说那位是个彻底的烟鬼。"

흩어진 담배꽂초들을 운동화 앞코로 긁어모아 무덤을 만들던 우영의 고개가 천천히 끌어올려졌다. 그분? 반문하는 우영을 향해 막내 삼촌이 눈을 깜박였다. 대강 얼버무렸으면 자연스레 지나갔을 것을, 막내 삼촌은 티 나게 당황하며 입술을 안쪽으로 합 말아 물고 도끼의 눈치를 살폈다. 누가 봐도 말실수를 했다는 제스처였다.

散落的烟头被郑友荣用运动鞋的前端刮到一起，堆成了一个小坟堆。他慢慢抬起头。那个人？郑友荣反问道，最小的叔叔眨了眨眼。如果随便敷衍过去，事情就会自然过去，但最小的叔叔明显地慌张起来，把嘴唇向内卷起，偷偷观察着斧头的反应。任何人都能看出这是说错话的姿态。

"숨기는 거 뭐야. 빨리 말해."

"你在隐瞒什么？快说出来。"

우영은 최산의 생일도 고향도 모른다. 알려주질 않았으니까. 어쩌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축하받은 적 없는 생일, 환영받은 적 없는 고향 같은 거 없는 채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 수도. 최산의 인생은 대체로 그런 식으로 흘러왔다.

友荣不知道崔伞的生日和故乡。因为他从未告诉过他。也许从一开始就不存在。没有被祝贺过的生日，没有被欢迎过的故乡，或许他认为这样生活更好。崔伞的人生大致就是这样过来的。

처음 조우하는 최산의 주변인. 그를 통해 산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생기자 속이 울렁거렸다.

初次遇见崔伞的周围人。通过他，期待能更了解伞的心情让内心激动不已。

"내가 최산한테 가서 직접 물어봐?"

"我要去问崔伞吗?"

"야 너는, 형님이 니 친구야? 애새끼가 말본새 하고는...."

"喂, 你是, 哥是你朋友吗? 小子说话的样子真是....."

"꼴초라는 그분이 누구냐고." "你说的那个老烟枪是谁?"

지금 우영을 가장 열받게 하는 건 여기서 오직 저만이 그분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심지어 저보다 늦게 합류한 막내 삼촌마저도 알고 있는 그걸.

现在最让友荣生气的是, 这里只有他一个人不知道那位的存在。甚至连比他晚加入的忙内叔叔都知道。

"와 씨발. 최산에 관한 건데 왜 내가 모르지?"

"哇, 操。是关于崔伞的事情, 为什么我不知道?"

우영이 제 얼굴을 쓸어내리며 실소했다. 눈알이 한 바퀴 돌았다. 높아진 언성으로 골목 전체에 우영의 목소리가 웅웅 울렸다. 우영의 분노가 소외감 같은 아기자기한 감정에 기인한 게 아니라는 건 오래 봐온 도끼가 제일 잘 알았다. 거짓으로 둘러대자니 이 중에서 뺑카와 구라를 제일 잘 잡아내는 놈이 바로 재였다. 도끼는 어쩔 줄 몰라 입만 벅긋거리는 막내를 저지하고 제가 말을 이어받았다. 꼭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 같았다.

友荣抚摸着我的脸, 苦笑了一下。他的眼珠转了一圈。随着声音的提高, 友荣的声音在整个巷子里回荡。友荣的愤怒并不是源于被冷落之类的小情绪, 这一点看了很久的斧头最清楚。要是撒谎的话, 这里面最能识破谎言的就是他了。斧头不知道该怎么办, 只能阻止张着嘴的忙内, 自己接过了话茬。这感觉就像是在玩传递炸弹的游戏。

"형님 아버지셨어." "哥哥是父亲。"

우영의 시선이 아주 느린 궤적을 그리며 도끼에게 돌아갔다. 곧 터질 듯 심지가 짧아진 폭탄을 우영에게 넘기는 것이 착잡해진 도끼가 눈을 피했다. 불행히도 우영은 기겁게 그것을 안아 들었다. 그것이 제 팔과 심장을 찢어버릴 걸 알면서.

郑友荣的视线缓缓地转向了斧头。斧头的目光闪躲开了，因为他知道自己即将把一颗即将爆炸的炸弹交给郑友荣，这让他感到复杂。不幸的是，郑友荣欣然接受了它，尽管他知道这会撕裂他的手臂和心脏。

"...최산한테 아빠가 있었다고?" ".....崔伞有爸爸?"

질문하는 우영의 목소리가 전에 없이 가라앉아 있었다.

郑友荣的声音前所未有地低沉。

"당연한 거 아니냐? 형님도 사람인데."

"这不是理所当然的吗？哥哥也是人啊。"

우영이 헛웃음을 쳤다. 도끼는 가벼운 고갯짓으로 막내와 그 일행들을 물러나게 했다. 썰물처럼 시커먼 정장 무리가 빠져나간 골목엔 우영과 도끼 둘뿐이었다. 입이 쓴 지 도끼가 새 담배를 하나 더 빼물고 불을 당겼다. 아직 의문이 다 해소되지 않은 우영은 참을성 있게 이어질 말을 기다렸다. 아무래도 설명은 그게 다가 아닌 모양이라서.

友荣苦笑了一下。斧头轻轻点了点头，示意忙内和他的同伴们退下。像退潮一样，穿着黑色西装的一群人从巷子里撤了出去，只剩下友荣和斧头两个人。斧头觉得嘴里发苦，又拿出一根新的香烟点上。友荣的疑问还没有完全解开，他耐心地等待着斧头接下来的话。看来解释还没有结束。

맨팔로 스미는 바람이 제법 서늘한 계절이었다. 우영은 건물이 지운 그림자가 끝나는 지점을 봤다. 햇빛이 비추는 저쪽과 이쪽의 명암 차이가 명확했다. 손을 뻗으면 온기가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우영은 꿈쩍하지 않고 해가 드리워 반짝이는 양지의 풍경을 멍하니 응시했다. 건물들이 태양을 삼키는 시간. 에덴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밤을 기다리는 게 익숙한 족속들이었다.

那是一个风吹在裸露的手臂上也显得相当凉爽的季节。郑友荣看着建筑物投下的阴影结束的地方。阳光照射的那边和这边的明暗对比十分明显。伸手过去的话应该能感受到温暖。然而，郑友荣一动不动地呆呆地注视着阳光洒落的明亮景象。建筑物吞噬太阳的时间。伊甸园的人们无一例外地习惯了等待夜晚的到来。

"친아버지가 아니었ندا. 형님은 빛 때문에 버림받아 팔려 온 거고."

"亲生父亲不是他。哥哥是因为债务被抛弃后卖过来的。"

"....." "....."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지?"

"这故事听起来很熟悉。"

도끼가 허탈하게 웃었다. 우영은 골목 밖으로 향해 있던 고개를 도끼에게로 되돌렸다.

斧头无力地笑了。友荣把原本朝向巷子外的头转向了斧头。

"이쪽 업계에선 제법 유명해서 저 아래 지방에서 활동하다 상경한 조폭 놈들 중엔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 그분이 주워 기른 게 산이 형님이라."

“在这个行业里相当有名，所以在下面地方活动后上京的黑帮小子们没有不知道的。据说那位大人捡来养大的就是伞哥。”

한 모금을 깊게 빠느라 말이 툇 끊어졌다. 우영은 조바심에 입술을 쓸었다. 본 적 없는 최산의 어린 시절이 흐릿한 흑백의 무성 영화를 복원하듯 선명해져갔다.

一口深深地吸入，话语戛然而止。友荣焦虑地舔了舔嘴唇。未曾见过的崔伞的童年，像修复模糊的黑白无声电影一样，变得清晰起来。

"성격이 무지 괴팍한 양반이었다더만. 말이 좋아 부자 지간이지, 끈으로 키우려다 안 되니까 형님이 고생을 많이 했나 봐."

“性格非常怪癖的那位。说是父子关系好听点，其实是想把他培养成高手，结果不成功，哥哥好像吃了不少苦头。”

"....." "....."

"한동안은 어린 애인이다 뭐다 소문만 존나게 무성했지.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나도 카더라를 좇어 듣기만 했을 뿐 직접 본 건 아니라서."

“有一段时间，关于他有个小女朋友的传闻满天飞。到底是真是假谁也不知道。我也只是听说而已，并没有亲眼见过。”

이 구간에선 심호흡을 해야만 했다. 내뿜는 숨이 떨렸다. 씹. 된소리를 읊조린 우영의 미간이 우악스럽게 구겨졌다.

在这个区间里必须深呼吸。吐出的气息在颤抖。嘶。低声咒骂的郑友荣皱起了眉头。

"...삼촌." ".....叔叔."

"더 알려고 하지 마라. 너 같은 놈들 많았지만 좋은 꼴은 하나도 못 봤어."

“别再打听了。像你这样的人很多，但没有一个有好下场。”

다 태운 담배를 공초 더미에 처박은 도끼가 미련 없이 무릎을 일으켰다. 쏟아지는 정보들이 마치 폭격 같았다. 혼란스러워진 우영이 도끼의 팔을 붙잡았다. 열여덟, 의연하기엔 아직 미숙한 나이였다. 어른인 양 잘난 척해도 실상은 서투르기 그지없다는 걸 도끼는 우영의 흔들리는 표정을 보며 깨닫는다. 도끼의 자켓 소매에 매달린 우영의 손끝이 희게 질렸다.

把抽完的烟蒂狠狠地扔进烟灰缸里，斧头毫不犹豫地站了起来。涌来的信息如同轰炸一般。混乱中的郑友荣抓住了斧头的手臂。十八岁，对于镇定自若来说还太稚嫩。即使装作大人的样子，实际上还是笨拙得不行，斧头看着郑友荣那动摇的表情，意识到了这一点。郑友荣抓着斧头夹克袖口的手指已经变得苍白。

"우영아. 산이 형님도 만만치 않게 짠하게 살았다."

“友荣啊，伞哥也过得不容易。”

동정하라기보단 공감하라는 뜻에서 건넨 말이겠지만, 우영은 도무지 곱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与其说是同情，不如说是为了让他感同身受，但友荣根本无法接受。

"씨발 뭐 어찌라고. 나는 내가 제일 불쌍해."

“操，那又怎样。我觉得我自己最可怜。”

양껏 뼈뺀 우영의 자기 비하에도 도끼는 타박 없이 우영의 어깨나 두드리고 만다.

尽管友荣极尽自嘲，旼琦只是拍拍他的肩膀，没有责备。

마침내 마주한 최산의 편린이란 고작 이런 거였다. 푸하. 웃음을 터뜨린 우영이 돌연 표정을 굳혔

다. 치켜뜬 눈매가 사나웠다. 도끼는 산이 우영을 키우겠다 결심한 날 몇 번이고 그를 말리며 설득하던 때를 떠올렸다. 우영이 아니길 바란 이유는 간단했다. 저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결국 그 똥고 집을 꺾진 못 했다.

终于面对崔伞的片段不过如此。噗哈。爆笑的友荣突然表情僵硬了起来。上挑的眼神变得凶狠。斧头想起了伞决定要抚养友荣的那天，他几次试图劝阻伞。希望不是友荣的原因很简单，因为他不喜欢那种眼神。最终，他没能改变伞的固执。

"삼촌. 하나만 묻자." "叔叔。我只问一个问题。"

자릴 뜨려는 도끼를 우영이 불러 세웠다. 거리가 꽤 벌어진 채로 도끼가 뒤돌아봤다. 본의 아니게 대치 상태가 되었다.

伞叫住了正准备离开的友荣。两人之间的距离已经拉开了不少，友荣回头看了看。无意中，他们陷入了对峙状态。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어딘는데. 최산 아빠라는 남자."

"那么那个人现在在哪里？那个叫崔伞爸爸的男人。"

"....." "....."

"나한텐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거든? 존나....어이가 없네."

"你从来没跟我说过吧？真是.....太荒唐了。"

눈깔 상태로 보아 당장에라도 찾아내 죽여버릴 기세였다. 비슷했다. 한 번 찾아가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다. 죽일 수 있다면 더 좋겠으나 불가능성에 목숨을 걸 만큼 멍청하진 않았다. 게임이 되지 않는 상대라는 계산은 진작 섰다. 그래서 더 죽여버리고픈 건지 모르겠다. 패배감에는 면적이 없어서.

从他的眼神来看，他似乎随时准备找到对方并杀了他。确实如此。他真的很想去见见那个人。如果能杀了他就更好了，但他还不至于愚蠢到为不可能的事情赌上性命。他早就知道对方是个无法战胜的对手。也许正因为如此，他才更想杀了他吧。因为他对失败感没有免疫力。

"못 만나." "不能见面。"

눈도 깜박이지 않던 도끼가 던지듯 툭 내뱉었다. 왜! 우영이 버럭 했다. 단순하게 내가 너무 어려서 같은 합리적인 이유를 예상했던 우영은 이어지는 대답에 맥이 풀린다. 도끼의 단조로운 음성이 우영의 고향에 불협화음으로 섞였다.

眼睛都不眨一下的斧头像是扔东西一样冷冷地说：“为什么！”友荣大声喊道。原本以为会是因为自己太年轻这种合理的理由，友荣听到接下来的回答后顿时泄了气。斧头单调的声音和友荣的喊声混在一起，形成了不和谐的音调。

"실종됐어." "失踪了。"

"....." "....."

꽉 잡아 쥔 우영의 주먹이 느슨해졌다. 머리 위로 찬물을 끼얹은 듯한 기분이었다. 실종. 그 두 글자가 뇌내에서 공회전했다.

紧握的友荣的拳头松开了。感觉像是头上被泼了一盆冷水。失踪。那两个字在脑海中反复回荡。

조폭의 흔한 말로라기엔 끝 맛이 짹짹했다. 사방이 적이라 별안간 길 가다 칼 맞고 뒤통자는 쪽이 훨씬 깔끔했겠다.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린 그의 생은 최산이 증명하고 계승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유산과도 같은 최산은 그의 부재를 애도하지 않는다.

黑帮常用的说法，结尾却让人不舒服。四周都是敌人，突然在路上被刀捅死反而更干脆。他一夜之间消失的生命，崔伞正在证明和继承。而作为他的遗产的崔伞并不为他的缺席感到哀悼。

최산은 실수로라도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린 역사가 없었다. 곱씹을수록 이상했다. 줄거리의 어느 한 부분이 예리하게 도려내진 것처럼. 아마 비슷한 의문이 도끼의 머릿속에도 떠올랐을 것이다. 대화는 멎었지만 도끼의 표정에서 못다 한 뒷말이 읽혔다. 누구는 상대의 생각을 꿰뚫는 거냐 했지만 그저 남들보다 감이 좋고 눈치가 빠른 것뿐이었다.

崔傘从未在任何情况下提到过他的名字。越想越觉得奇怪，就像故事的某个部分被锋利地切掉了一样。也许类似的疑问也在金弘中的脑海中浮现。虽然对话停止了，但从金弘中的表情中可以看出他还有话没说完。有人说他能看透别人的想法，但实际上他只是比别人更敏锐，更善于察言观色而已。

정황에 근거해서 가능성을 유추하는 일. 어지러이 흩어진 최산의 조각들이 우영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정렬되었다. 재현되는 불행. 억지스러운 함구. 혼자서는 버틸 수 없는 밤.

根据情况推测可能性。崔伞的碎片在郑友荣的脑海中迅速排列。重现的不幸。勉强的沉默。一个人无法忍受的夜晚。

도끼가 한숨을 쉬어 중얼거렸다. 아마 죽었을 거야 그 양반. 우영이 나즈막이 실소했다. 탈력한 우영이 목소리를 만들어 낼 힘이 없어 다행이었다.

斧头叹了口气，喃喃自语道：“那个人可能已经死了。”郑友荣低声笑了笑。幸好筋疲力尽的郑友荣没有力气发出声音。

아니었다면, 설마 최산이 죽인 거냐고 물어볼 뻔했으니까.

如果不是这样的话，我差点就要问崔伞是不是他杀的。

EDEN 伊甸园

2/2

여기서부터 유료 분량이에요. 从这里开始是付费内容。

1,000P

텍스트 11,741자 (공백제외) · 링크 1개 · 이미지 2장

对不起，我无法处理包含链接和图像的内容。请提供纯文本内容，我会尽力为您翻译

구매하기

다음글

성인 JWY 인 더 트랩 JWY 在陷阱中
원샷

이전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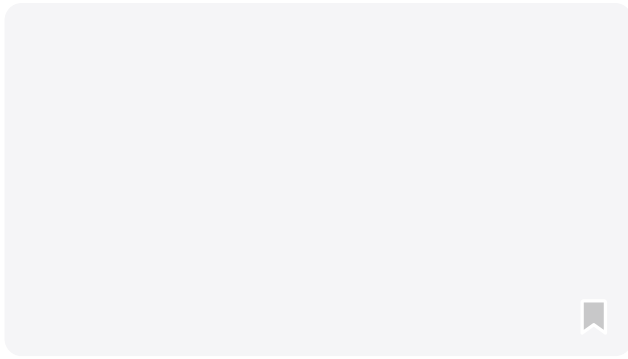
EDEN 1/2 伊甸园 1/2
원샷

나를 사랑하지 않기로 決定不愛我

구독자 771명 订阅者 771 名

구독하기

추천 포스트 推荐帖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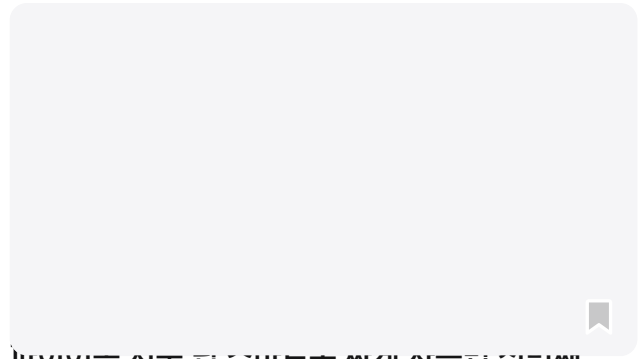
사도 세자로부터 从世子那里

소자는 그리 가야만 했습니까? | 나의 전하께 여느 날과 ...

小子真的必须那样去吗? | 我的殿下, 像往常一样, 这是-

2022.01.02

...



파이어폭 시작 가이드는 싸게 사는 법 첫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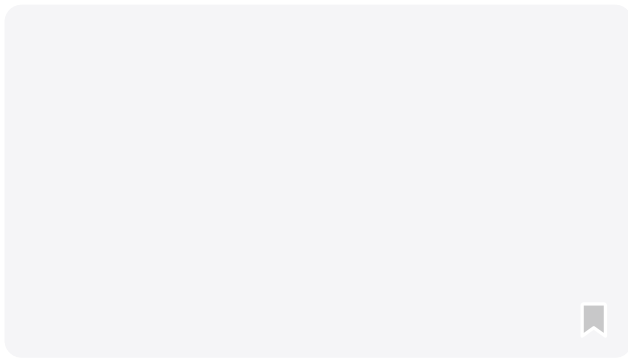
火族储蓄小贴士: 便宜买智能手机的第一步

모급형은 싸게 사는 법 | 약간 놀랐는데... 쓰고나서 누가 ...

如何便宜地买到入门级手机 | 有点惊讶... 写完之后我就忘

2024.02.07 1,000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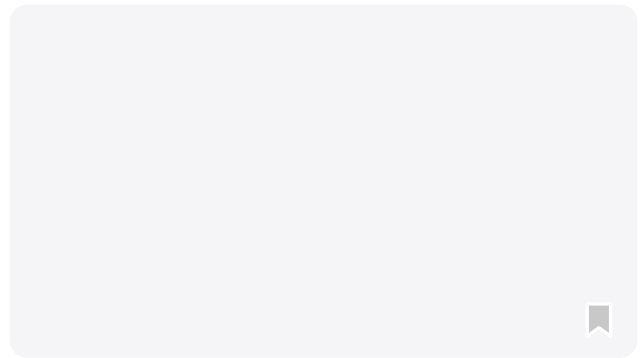
앤섬 세이브 월드! 1화 安森拯救世界! 第一章

아래 결제 상자는 해당 회차의 소장을 위한 것으로 결제 ...

以下结算框是用于该回合的收藏, 结算框底部没有其他内

2일 전 两天前 300P

...



혜경궁 홍씨로부터 从惠庆宫洪氏那里

살아도 산 것이 아니요, 죽어도 죽지 못하였다. | 이 나라 ...

活着也不是活着, 死了也不能死。| 臣拜见天子英祖大王殿

2022.05.10

...

🔄 추천 콘텐츠 더보기

13개의 댓글 13 条评论

SNS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ache 痛苦 후원 4,900P

2년 전

울고있어요 감사합니다 我在哭, 谢谢

0 1

...

90 후원 1,000P

2년 전

저 지금 울고있어요..... 我现在在哭.....

0 1

...

DD 후원 10,000P

2년 전

못말리는 호모새끼들 천인공노할 동성애꾼들 지옥불에 굴려져도 거기서도 붙어먹을 더러운 음란꾸러기들 이런 작품을 남기는 작가 수준도 알만하다 보나마나 진리를 쫓는 세계최고의 캐릭터 해석 장인 양성소에서 자라나서 이런 작품이나 쓰는거겠지ㅈㅈ 가짜아들과 가짜아빠가 같은 운명의 굴레 속에서 서로를 만나 구원이 되고 서로의 존재속에 종속되는 이따위 글이나 쓰는 인생 행복하고 아름다울게 뻔하다 진짜—— 이런 위대한 작품을 무료로 뿌리다니 공짜좋아하다간 대머리가 된다는 사실도 모르는건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드려는 속셈인 것인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값을 지불한다. 반성하라.

无法忍受的同性恋者们，即使被扔进地狱之火也会在那里纠缠在一起的肮脏淫乱者们，留下这种作品的作者水平也可想而知。显然，他们是在追求真理的世界顶级角色解读大师培养所长大的，所以才会写出这种作品。假儿子和假爸爸在同样的命运枷锁中相遇，成为彼此的救赎，并在彼此的存在中依附，这种文章的作者的人生一定是幸福而美丽的。真是的，竟然免费传播这种伟大的作品，难道不知道喜欢免费的东西会变成秃头吗？这是想把韩国变成共产主义国家的阴谋吗？我实在无法原谅，必须付出代价。反省吧。

0 24

...

청운 후원 2,000P

2년 전

사랑합니다 我爱你

0 1

...

릭비 후원 5,000P

2년 전

여기가 제 에덴동산이고 디퍼님은 신입니다

这是我的伊甸园，而您是神

0 1

...

탱커벨 후원 2,000P

2년 전

여기가 천국인가 ...해도 안뜨고... 암막커튼 시발...하..미친...미친... 여운이 안가서서 오조오억번 더 읽고 오겠습니다...

这里是天堂吗.....眼睛都不睁开.....遮光窗帘, 妈的.....哈.....疯了.....疯了.....余韵还没散去, 我要再读五百万次.....



0 2

...

강순자

2년 전

진짜말도안되는 숨막히는 대작이에요 어떻게 이럴수가TTTTTTTTTT 대사 하나하나 묘사 하나하나가 감정과 정신을 쥐고 흔들어요 진짜 읽는 동안은 다른생각 하나안들고 몰입해서 이 세계에 들어가 살고 있는 기분..진짜 에덴은 미쳤어요TTT

真的是令人窒息的杰作, 怎么会这样TTTTTTTTTTTT 每一句台词, 每一个描写都抓住了我的情感和精神, 真的在阅读的过程中没有其他想法, 完全沉浸在这个世界里, 感觉自己在其中生活..真的, 伊甸园太疯狂了TTT

0 1

...

강호동

2년 전

디퍼님 글은 매번 읽을 때마다 글에서 느껴지는 텐션 때문에 너무 심장 떨려서 토 나올 것 같아요 진짜로... 이번에도 역시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어요.. 마지막에 나오는 음악까지도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거의 불한당 파아란급) 앞으로 저 노래 들을 때마다 에덴 속 뽕냇이들이 파노라마처럼 속속 스쳐 지나갈 것 같네요TT 너무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디퍼님.. 엄마...

每次读迪珀的文章时, 因为文章中传达的紧张感, 我的心脏都快要跳出来了, 真的.....这次也是不知不觉中就读完了。最后出现的音乐也非常非常好 (几乎是《不汗党》蓝色级别)。以后每次听到那首歌时, 伊甸园中的 Wongnats 们都会像全景一样一闪而过。TT非常感谢你写了这么好的文章, 我爱你, 迪珀.....妈妈.....

0 1

...

2년 전

그리고 배경음악 선택이 미치셨습니다 제발 다들 들으면서 읽으시길 모든게 끝난 후 마지막에 흘러 나오는 prey에 제 심장이 뜯겨지는 것만 같았어요 오늘부터 제 플리에서 무한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에덴의 왕났을.. 디퍼님을 생각하겠지요

而且背景音乐的选择太棒了，拜托大家一边听一边读。所有结束后最后播放的《prey》让我感觉心脏都要被撕裂了。从今天开始，这首歌将在我的播放列表中无限循环.....每次听到这首歌，我都会想到伊甸园的《왕났》.....想到디퍼님。

0 2

...

2년 전

믿기지가 않아요 에덴 1편에서 디퍼님의 미친필력에 감탄하며 한문장당 심호흡 한번 심장마사지 한번 해가면서 읽었는데 2편은 그냥.. 엄청난 스크롤에도 줄어드는게 아쉬워서 읽은 부분 다시 읽고 또읽고 또 읽다보니 몇분이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카드알못인데 워낙 글실력이 좋으셔서인지 포커게임부분도 영화 보듯 몰입해서 보게됐구요 텐션을 유지하면서 왕났의 배덕한 관계성을 은은하게 잘 녹여내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숨쉴틈 없이 봤어요 정말 아메이고 서프라이즈 기립박수입니다 디퍼님이 제 천국이구요 저는 디퍼님을 위해 신체포기각서 바칠수 있습니다 천국이 장소가 아닌 상태라구요? 아뇨 천국은장소입니다 바로 여기가 디퍼님의 포스타입이 제 천국입니다 왕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지겹도록 들은 칭찬이겠지만 당신은 신입니다

简直不敢相信，在《伊甸园》第一篇中，我对迪弗的疯狂文笔感到惊叹，每读一句话都要深呼吸一次，给心脏做一次按摩。第二篇就更是如此.....即使有大量的滚动条，我还是觉得不够，反复读了好几遍，不知道花了多少时间。我对卡牌游戏一窍不通，但由于您的文笔实在太好，连扑克游戏的部分都让我像看电影一样沉浸其中。您在保持紧张感的同时，巧妙地将旺纳特的背德关系融入其中，从头到尾让我无法喘息。真的是阿门，给您一个惊喜的起立鼓掌。迪弗，您就是我的天堂，我愿意为您献上身体放弃书。天堂不是一个地方，而是一种状态？不，天堂是一个地方，就是这里，迪弗的 Postype 就是我的天堂。感谢您写了旺纳特的故事。虽然这可能是您听腻了的赞美，但您真的是神。

0 3

...

을매

2년 전

기립박수 起立鼓掌

0 2

...



엄마이것만보고 妈妈, 只看这个
와씨발 개돌았다..미친 哇, 真是疯了。

2년 전

💬 0 ❤️ 1 ❤️

...



Cariño 亲爱的 후원 2,000P
아멘

2년 전

💬 0 ❤️ 1 ❤️

...

채널 통계와 유입을 확인해 보세요

스튜디오
이용 가이드